은행

Sector Issue Brief 2026. 01. 22

Check Point

- 4개 은행 LTV 과징금 2,720억원
- 우려 대비 현저히 적은 규모
- 추가 비용요인들 하나씩 구체화. 관련 불확실성 완화 국면

LTV 담합 과징금 표면화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ELS에 이어 LTV 과징금 발표

▶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에 대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위반 금지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4대 은행은 LTV 산정시 다른 은행의 정보를 반영해 영업경쟁력 약화 및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 함. 담합 은행들의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점유율이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었고, 평균 LTV가 62.05%로 비담합 은행의 69.52%에 비해 낮게 형성되면서 추가담보 제공 등 대출거래 조건이 악화되었다고 평가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해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규정'이 적용된 첫사례로 공정위는 제시

우려 대비 적은 과징금 규모. 각종 노이즈 표면화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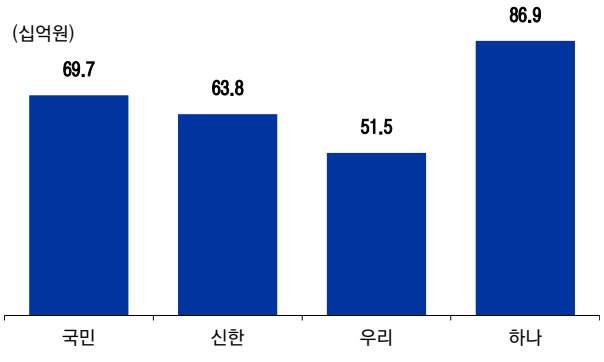
▶ 은행별 과징금은 국민 697억, 신한 638억, 우리 515억, 하나 869억원임. 담합효과에 따른 이자수익(매출액) 6.8조원의 4%를 과징금으로 산정함

▶ 이는 당초 우려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지주평균 26년 예상 세전이익의 1.1%에 불과. 과거부터 LTV 담합은 있었으나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인 22년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적용했고, 정부규제 LTV가 적용된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과징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 과징금 규모가 크고 제제심의가 진행중인 ELS와 달리 LTV담합 과징금은 사실상 불확실성이 해소. 국고채 PD담합 이슈가 남아있으나 LTV와 마찬가지로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는데 관련수익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영향은 미미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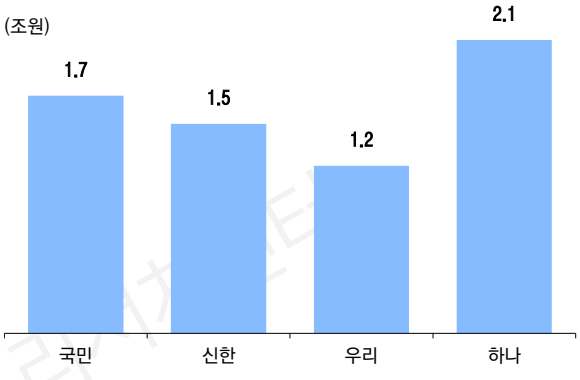
▶ ELS 과징금 일부, 배드뱅크 출연금과 마찬가지로 LTV 과징금 역시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추가적인 비용요인들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주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판단

그림1 은행별 LTV 담합 과징금 부과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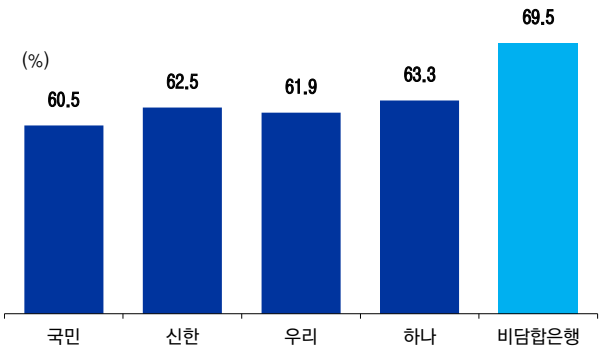
자료: 공정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은행별 LTV 담합 관련 이자수익(매출액)



자료: 언론보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은행별 평균 LTV 수준



자료: 공정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은행권 LTV 담합 과징금 진행경과

2023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은행 독과점 해소 및 경쟁촉진 대책 마련 지시
6월	공정위, 6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IBK기업·H농협), 전국은행연합회 현장조
2024년 1월	공정위, 은행권에 심사보고서 발송
11월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관련 1·2차 전원회의
	공정위, 재심사 결정
2025년 2월	공정위, 4대 시중은행 추가 현장조사
4월	공정위, 은행권에 심사보고서 재발송
11월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관련 3 · 4차 전원회의
2026년 1월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 결과 발표

자료: 언론보도,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8.7% 11.3%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1. 01 ~ 2025.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